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28)

유니치카 텍스타일의 “람코” - 인도 면의 새로운 역사 만들어

인도 면의 역사는 B.C. 2,600년 ~ B.C. 1,300년경 인더스 문명의 유적에서 발견된 면포 조각이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료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인도 면을 개량하여 방적한 원사가 유니치카 텍스타일의 “람코”이다. 이 인도면은 훌륭한 특징을 갖고 있는 원종(原種)인 수나무(雄木)와 암나무를 따로 재배하여 인공 교배로 암수의 좋은 특성만을 살린 하이브리드 면(hybrid 綿)이다.

하이브리드 면은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교배시켜 많은 손과 시간이 걸리므로, 노동력이 풍부한 인도에서만 상업 생산이 가능하고 람코 텍스타일은 이 하이브리드 면 중에서도 품질이 가장 우수한 수빈 면(Subin cotton)과 DCH-32 면만으로 실을 생산하고 있다.

유니치카 텍스타일에서는 람코 그룹의 협력으로, 인도에서 방적하고 있다. 원면은 모두 입찰식으로 구입하고 있어, 지정된 농가에 계속 위탁 생산하기는 어렵다. 수확은 여자들이 정성들여 잘 영근 목화만을 손으로 따고 있다. 그러므로 섬유는 기계로 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하지 않아 면 섬유가 좋긴 하나, 대신 이물질이 많이 섞여, 인도 면은 이물질이 많이 섞여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면 섬유를 선별하는 등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람코”의 원단은 윤기가 흐르고, 실크와

같은 광택감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초장면(超長綿)이기 때문에 강력이 좋고, 인도 면 특유의 천연 유지분이 많기 때문에 섬유에 매끈한 맛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원단은 인도 면의 독특한 소재감을 잘 살린 원사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람코" 원단은 인도 면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수빈 면과 DCH-32를 100% 사용하여 50~100수의 세 번수를 방적하고 있으며, 니트용 80수의 강연 쌍사나 40~110수 등의 다른 번수에도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용도는 손수건, 침장품, 셔츠, 니트용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